

“中 독점 막아라”… 전구체 자급률 70% 공급망 ‘재편 가속’

포스코퓨처엠, 年 4.5만톤 공장 준공
고려아연·LG화학, 울산 합작공장 가동
LS-L&F, 새만금 시운전 내년 양산
IRA·미중갈등 속 탈중국 전략 ‘필수’

국내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전구체 국산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비롯된 공급망 리스크에 더해, 트럼프 2기 들어 미중 갈등까지 격화되면서 탈중국 전략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현재 전구체의 국내 생산 비중은 10%대 그치고 있으나 업계는 생산능력 확대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향후 5년 내 자급률을 7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은 전남 전남 광양에 연산 4만5000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이는 전기차 50만대 분량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공장 준공으로 포스코퓨처엠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자체 생산하며 중국 의존에서 벗어난 독자적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포스코퓨처엠은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4만톤의 전구체 생산능력을 확보해 내재화율을 73%가



광양 전구체 공장에서 직원이 제조 공정을 확인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전구체는 이차전지 4대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의 원료로,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을 조합해 만든 화합물이다. 이후 고온에서 리튬(Li)과 반응시켜 양극재로 전환된다. 전구체는 배터리의 성능, 수명, 안정성에 직결되는 핵심 소재다.

포스코퓨처엠을 시작으로 주요 배터리소재 기업들도 전구체 자체 양산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고려아연과 LG화학은 합작법인 한국전구체주식회사(KPC)를 설립해 올해 1월부터 울산에서 전구체 공장 가동

을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 양산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생산 규모를 최대치로 늘릴 계획이다.

LS그룹의 합작법인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LLBS)도 전북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설립해 5월부터 시운전에 돌입했다. 내년 1분기부터 전구체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으로, 지속적인 증설을 통해 오는 2029년에는 전구체 연간 생산능력을 12만톤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양극재용 전구체 수요는 연평균 12% 성장해 지난해

약 320만톤에서 오는 2032년 약 777만톤으로, 8년 사이 2.4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자체 기술을 구축해 생산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다.

또한 그간 국내 소재기업들은 대부분 중국산 전구체를 사용하면서 전구체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매년 90%를 넘고 있다. 전구체 국내 생산 비중은 13% 수준이다.

최근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탈중국 현상이 가속되고 있고, 올해부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을 적용받아 중국 기업이 생산하거나 중국산 금속·화합물로 제조된 전구체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국내 생산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리스크와 IRA 규제를 고려하면 전구체의 국산화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글로벌 공급망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의 지원과 업계의 기술투자가 맞물려야 빠른 자립이 가능한 만큼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후방추돌 위험 감지

자율 회피 기술개발

고속도로에서는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 때문에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며 뒤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나 졸음 운전 등으로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현대모비스는 이처럼 고속도로 주행 중 후방 추돌 위험시 경고 후 차량 스스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11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후방 안전 제어 기술은 차량의 후측방 레이더, 전방 카메라 등 센서를 주행 제어 기술에 연동한 신기술이다. 이 기술은 2022년 현대차그룹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과제다.

이 기술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스마트크루즈컨트롤(SCC) 기능을 이용해 주행하고 있을 때 작동한다.

운전자의 차량은 뒤 차량이 약 10m 이내의 초근접 주행을 할 경우 이를 센서로 인식해 먼저 ‘삐’ 하는 소리나 클러스터 등에 시각적 경고 표시를 전달한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상황이 지속하면 차량은 스스로 속도를 높여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양성운 기자 ysw@

장용호號 첫 시험대… SK이노, 사업재편·자금조달 관전

장용호 총괄사장 체제 첫 전략회의 배터리 부진 등에 구조조정 시급

SK이노베이션이 그룹 차원의 경영 전략회의를 이틀 뒤 개최하는 가운데 최근 취임한 장용호 총괄사장의 리더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임 박상규 사장이 불과 1년여 만에 물러난 만큼 장 사장이 수익성 개선과 사업 재편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계열사의 리밸런싱 현황을 비롯해 그룹 전반의 중장기 전략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 사장 취임 이후 첫 회



장용호
신임 총괄사장



추형욱
신임 대표이사

의인 만큼 실적 개선과 자산 효율화를 포함한 SK이노베이션의 향후 경영 기조에도 관심이 쏠린다.

장 사장은 취임 후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에게 “사업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생존에 필요한 절대 과제”라며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전사적으로 힘을 결

집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영업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부 조직을 정비하고 체질을 개선해 위기 돌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 부진과 석유화학 업황 장기 침체의 영향으로 1분기 주요 사업 부문에서 실적 악화를 겪었다. 1분기 영업손실은 446억원으로 SK E&S와의 합병 효과에 힘입어 전분기 흑자를 기록했지만 1개 분기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재무 건전성도 악화됐다. 1분기 부채비율은 207%로 자기자본 대비 부채가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말 부채비율인 179%보다 상승한 수치다.

SK온 IPO도 장 사장이 안고 있는

주요 과제 중 하나다. SK온은 재무적 투자자(FI)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며 2026년 말까지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시장 업황이 악화되면서 IPO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IPO 시한은 2028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을 넘길 경우 투자자들은 사전에 약속한 가격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해야 할 규모는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IB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보유 중인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사를 담보로 자금 마련을 추진 중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차 더 뉴 엑시언트.

현대자동차

‘더 뉴 엑시언트’ 출시

디자인·편의사양 대폭 강화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디자인과 다양한 안전·편의 사양 적용으로 상품성을 대폭 강화한 대형 트럭 ‘더 뉴 엑시언트’를 11일 출시했다.

더 뉴 엑시언트는 2019년 엑시언트 프로 출시 이후 6년 만에 새롭게 돌아온 부분 변경 모델이다. 신차 수준으로 진화한 웅장하고 미래적인 디자인과 함께 고객 선호도가 높은 안전·편의 사양을 대거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 더 뉴 엑시언트는 작고 날렵한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통해 공력 성능을 높였으며 야간이나 우천 주행 시에도 우수한 시야를 제공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실내에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해 세련미를 강조했다. 특히 현대차는 장거리 주행을 많은 트럭 운전자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더 뉴 엑시언트에 다양한 첨단 안전 사양을 대거 적용했다. /양성운 기자

유럽 최대 상업용 ESS기업에 배터리 공급

삼성SDI 독일 테스볼트와 계약 SBB 제품 기반 추가 협력 추진

삼성SDI가 안전성과 고에너지밀도가 강점인 ‘SBB’의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유럽 최대 상업용 ESS(에너지저장장치) 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었다.

삼성SDI는 독일 테스볼트와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테스볼트는 유럽 상업용 ESS 시장의 선두업체로 지난해 독일 남서부 라인란트팔츠주에 구축될 ESS 시설에 대한 공급 계약을 확보하는 등 가

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SDI는 이달 말까지 자사의 일체형 배터리 제품인 SBB를 테스볼트 측에 공급하며 테스볼트는 여기에 전력변환장치(PCS)와 사이버 보안시스템 등을 결합한 자체 ESS 솔루션을 생산,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두 회사는 이번 계약 외에 추가 공급을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추후 ESS사업 수주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등 협력을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차현정 기자

삼성, 냉장고에 가족별 AI ‘보이스 ID’ 도입

목소리로 일정·사진 확인 가능

삼성전자가 터치스크린 냉장고에 가족 구성원별 맞춤형 인공지능(AI) 기능인 ‘보이스 ID’를 새롭게 도입한다.

삼성전자는 2025년형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와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를 시작으로 이달 중 ‘보이스 ID’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보이스 ID는 삼성 AI 음성 비서 ‘빅스비’를 기반으로 가족 구성원의 목소

리를 인식해 각자에게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접근성 기능도 강화됐다. 사용자의 목소리를 인식해 해당 사용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에 설정해 둔 색상반전, 흑백 모드 등 접근성 설정이 냉장고 스크린에도 자동 적용된다.

빅스비 호출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의 ‘하이 빅스비’ 음성 호출 외에 냉장고의 터치스크린이 꺼진 상태에서도 화면을 두 번 두드리면 빅스비가 작동한다.

/이혜민 기자 hyem@